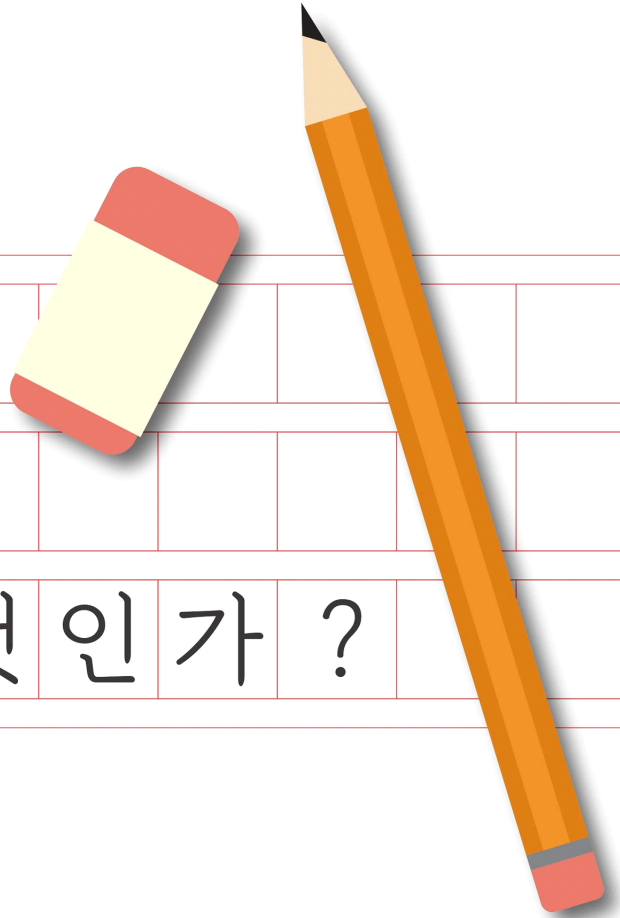


10월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아카데미 강좌

목	회	자	,																
무	엇	을		읽	고														
어	떻	게		쓸		것	인	가	?										



10월 15일(화), 22일(화)
저녁 7시 30분 ~ 9시



김기현 목사 (로고스교회 담임, 로고스서원 대표)

- 로고스서원에서 글쓰기학교 1년 과정 프로그램을 1-30기 지도
- 『매일성경』의 본문 해설 집필자
- 14권의 저술과 7권의 번역 13편의 학술 논문
- 고신대 창의교수학습센터 글쓰기 강사

설교 쓰기 Workshop 강의안



I. 강의를 시작하면서

1. 목회자가 글 쓰는 직업인 줄 알았다면.....

2. 신학교에서라도 제대로 배웠다면

3. 설교 원고를 쓰는 목회자가 의외로 많다. 그런데?

4. 내가 설교 쓰기 학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 누가 더 좋아할까요? 목회자? 평신도?

5. 이 강의의 목표

- 1)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설교 포맷을 익힌다.
- 2) 개요 작성을 실습하고 발표한다.
- 3) 본문 쓰기 혹은 문단 쓰기를 연습한다.
- 4) 포맷과 개요, 문단 쓰기를 익히고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것을 만든다.

6. 이 강의를 다루지 않는 것

- 1) 성경 해석에 관한 것
- 2) 목회자 개인의 영성 관리 등
- 3) 오로지 설교를 쓴다는 것의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만 다룬다.

II. 로고스 스피치 포맷 / 개요 작성

1. 구조를 짜고 시간과 분량을 계산한다.

2. 분량은 A4 4-5장, 시간은 30분으로 가정한다.

3. 구조

서론

- 1) 문제 제기 : 1-3문단
- 2) 주장 제시 : 1-2문단

본문/대지 구조

- 1) 여는 말 : 1문단
- 2) 요약/관찰 : 2-3문단
- 3) 의미/해석 : 2-3문단
- 4) 적용/도전: 1-2문단

결론

- 1) 요약 : 1-2문단
- 2) 도전 : 1-2문단

4. 시간 안배(ex. 코스타 시카고 주제 특강)

- 1) 서론(2-4분)
- 2) 대지 1(8-10분)
- 3) 대지 2(7-8분)
- 4) 대지 3(8-10분)
- 5) 결론(1-3분)

5. 본론 쓰는 법/대지 구성 방법

- 1) 대지 구성 방식 설명 이전에 실제 샘플을 보고 이야기하자.

빌립보서 강론

1.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1:1-11)

- 1) 그리스도에게서 온다(1-2)
- 2) 성도의 교제에서 온다(3-8)
- 3)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도에서 온다(9-11)

2. 장애를 뛰어넘는 기쁨(12-26절)

- 1)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12-13)
- 2) 사람을 뛰어넘는 기쁨(14-21)
- 3) 죽음을 뛰어넘는 기쁨(22-26)

3. 언제 기쁨을 맛보는가?(1:27-2:4)

- 1)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27)
- 2) 서로 협력할 때(27-28, 2:1-4)
- 3) 함께 고난 받을 때(29-30)

4. 예수의 모범이 주는 기쁨(2:5-18)

- 1) 겸손이 기쁨입니다(7, 14-16)
- 2) 복종이 기쁨입니다(8)
- 3) 희생이 기쁨입니다(17-18)

5. 기쁨으로 섬긴 사람들(2:19-30)

- 1) 우선 순위를 예수에게 둔 사람, 디모데(19-24)
- 2)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에바브로디도(15-28, 30)
- 3)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라(29)

6. 무엇으로 기뻐하는가?(3:1-9)

- 1) 내 조건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 2) 내가 한 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 3)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7.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3:10-21)

- 1) 과거: 뒤의 것은 잊어야 합니다
- 2) 미래: 의의 것을 쫓아야 합니다
- 3) 현재: 앞의 것을 잡아야 합니다

8. 항상 기뻐하려면(4:1-9)

- 1) 선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나와의 관계)
- 2)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하나님과의 관계)
- 3) 남의 유익을 위해 관용해야 합니다(이웃과의 관계)

9. 풍성한 기쁨의 삶(4:10-23)

- 1) 자족이 풍성한 기쁨입니다(10-13).
- 2) 나눔이 풍성한 기쁨입니다(14-18)
- 3) 은혜가 풍성한 기쁨입니다(19-23)

「내 안의 야곱 DNA」(쥬이박스)

프롤로그 : 버려지 같은 너 야곱아

- 1)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 2) 야곱의 야망
- 3) 야곱의 수단
- 4) 하나님의 은혜

1장 출생의 비밀 : 운명 vs. 의지

- 1) 하나님의 선택
- 2) 부모의 기도
- 3) 야곱의 결정

2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 시간 vs. 방향

- 1) 시계 vs. 나침반
- 2) 당장 vs. 나중
- 3) 은혜 - 때를 아는 삶

3장 축복을 탈취하다 : 축복 vs. 기복

- 1) 복, 복, 복
- 2) 모로 가도
- 3) 하나님이 하신다

4장 베엘에서 : 베엘 vs. 베엘

- 1) 어디 사세요?
- 2) 주님 찾아 오셨네
- 3) 초막이나 궁궐이나
- 4) 서원 - 조건 vs. 약속
- 5) 아직도 가야할 길

5장 사랑과 노동 : 일상 vs. 신앙

- 1) 칠년을 수일 같이
- 2) 눈 붙일 겨를도 없이
- 3)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6장 하란에서 보낸 스무해 : 심판 vs. gnsfus

- 1) 원치 않는 땅에서
- 2) 인과 응보
- 3) 자기 연단
- 4) 주의 축복

7장 압복강에서 : 지혜 vs. 술수

- 1) 계획(plan) - 지혜 vs. 술수
- 2) 기도(pray) - 강청 vs. 강요
- 3) 능력(power) - 전능 vs. 무능

8장 하나님의 얼굴 : 원수의 얼굴 vs. 하나님의 얼굴

- 1) 내 얼굴은 누구 얼굴?
- 2) 에서 얼굴은 하나님 얼굴
- 3) 야곱 마음은 하나님 마음
- 4) 용서와 화해
- 5) 나는 왜 아직도 그대로일까?

9장 열정과 실용 너머 : 세상 안 vs. 세상 밖

- 1) 왜 나는 다시 실패하는가?
- 2) 세상 속에 있으나 - 디나
- 3) 세상과 싸우되 - 시므온과 레위
- 4)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 야곱
- 5) 세상으로부터

10장 내 나그네 길의 세월 : 살아온 날 vs. 살아갈 날

- 1) 끝나지 않은 여행
- 2) 벳엘 가는 길 - 여정
- 3) 떠나는 사람들 - 인생
- 4) 해묵은 문제 - 관계

에필로그 :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 1) 인생 - 아, 험악한 세월!
- 2) 은혜 - 엇갈린 손, 엇갈린 선택!
- 3) 사명 - 축복하는 자로

6. 대지의 유형

- 1) 대등형
- 2) 점층형
- 3) 진전형
- 4) 반전형

7. 문단 쓰는 법

- 1) 좋은 글이란?
- 2) 문단이란?
 - (1) 개념 :
 - (2) 형식 :
- 3) 문단 형식
 - (1) 주장 - 설명
 - (2) 설명 - 주장
 - (3) 주장 - 설명 - 주장

8. 결론 쓰는 법

- 1) 결론에서 해야 할 것, 두 가지
논술이나 칼럼에서 결론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본론을 요약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전망을 제시하기이다. 설교에서 결론은 설교 내용의 요약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 2) 적용과 도전이 어려우면 요약으로 마쳐도 된다.
- 3) 결론은 없어도 된다. 세 번째 대지가 결론이다.

9. 서론 쓰는 법

- 1) 서론의 역할
 - (1) 화제 : 독자와 청중의 관심과 흥미 유발
 - (2) 과제 : 글을 통해 자신이 풀려고/하고자 하는 문제와 주장을 제시
- 2) 서론의 기능
 - (1) 문제 제기

(2) 주장 제시

3) 설교의 서론 목적(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207-08.)

- (1) 청중의 관심 유도
- (2) 공감대 형성
- (3) 본문으로 들어가는 교량 역할
- (4) 설교의 목적 설명

4) 문제 제기하는 방법

- (1) 예화 혹은 간증/일상적 경험
- (2) 속담이나 격언, 인용문으로 시작하기
- (3) 개념 설명

5) 좋은 서론의 특징 : 짧게, 짧게, 짧게

6) 왜 그런가?

- (1) 한국 사람 말은 000 들어야 안다?
- (2) 한국어와 영어의 문장 구조 ex) I go home.
- (3) 두 언어의 사고 구조 패턴 차이 ex) 집 그리기
- (4) 영어 : 나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 (5) 한국어 : 이러이러해서 나는 주장한다.

7) 설교에서 서론은 없어도 된다. 곧 바로 들어가도 된다. 왜 그런가?

10. 제목 잡는 법

11. 퇴고하는 법

1) 퇴고하는 자세: 이태준의 말

2) 퇴고할 때 원칙 : 스티븐 킹

3) 퇴고하는 방법

(1) 출력해서

(2) 소리내서

4) 퇴고할 때 이것만 고쳐도 된다 : 글 쓸 때 피할 것, 몇 가지

(1) 좋은 문장을 쓰는 방법 중 하나는 나쁜 문장 안 쓰기이다.

(2) 다음과 몇 가지만 줄여도 문장이 깔끔하게 읽힌다. 요지는 동사를 단출하게 하라, 이다.

(3) 로고스서원 글쓰기학교 식구들의 첨삭을 하면서 이런 표현은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다.

① 것이다.

② ~수 있는/~수 있다.

③ ~하는 것 같다. 또는 ~것 같다.

④ 생각하/한다.('~한다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문장)

⑤ 한 문장에서 한 단어를 가급적 한 번만 쓰기(ex- '이 책/영화는 ~~~~한 책/영화다.'와 같은 문장)

두 번째 강의: 개요 작성 실제

1. 조별로 앉는다. 한 조는 최대 5명, 최소 3명이다.

2. 개요 작성 법(「글쓰는 그리스도인」의 8장 참조)

1) 개요란 무엇인가?

개요란 한마디로 설계도이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이, 논문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다. 논문이라는 한 채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개요’라는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 한다. 질문에 대한 주제를 결정하고 제재를 수집·정리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하나로 끌어 모아 한 편의 완성된 글로 엮어 낼 계획표 또는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개요이다.

2) 왜 작성하는가?

- (1) 글의 일관성 유지: 글의 혼란과 탈선을 막을 수 있다.
- (2) 내용의 중복 방지: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을 피할 수 있다.
- (3) 내용의 누락 방지: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4) 글 전체의 균형 유지: 글 전체와 부분, 부분 상호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3) 어떻게 작성하는가?(참조: 블락, 「강해설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2장)

- (1)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한다.
- (2) 작성은 본론, 결론, 서론 순으로 한다.
- (3) 개요에 따라 제목을 작성한다.
- (4)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작성한다.
- (5) 상세하게 작성한다.
- (6) 주장과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4) 주의할 점은?

- (1) 본론 전개할 때 각 항목의 충위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 (2) 개요의 각 단계들은 비약이 없어야 한다.
- (3) 각 단락간의 긴밀성에 유의해야 한다.

5) 분량을 계산하라(「글쓰는 그리스도인」, 132-35.)

6) 모델 설교자의 설교 분석하기

(1) 핵심 주장 혹은 명제

(2) 대지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3) 결론

(4) 서론

7) 실습: 지난 주 설교나 칼럼의 개요를 아래에 적어 보자.

(1) 핵심 주장/명제:

(2) 대지

①

②

③

(3) 결론

(4) 서론

7) 새로운 개요 작성하기

(1) 핵심 주장/명제:

(2) 대지

①

②

③

(3) 결론

(4) 서론

8) 각 조에서 자신의 개요를 발표한다.

(1) 한 사람당 2-3분 안에 발표를 해야 한다. 실제 설교처럼 하면 안 된다. 골격만 제시하면 된다.

(2) 상호 교정하기. 첫 만남이므로 절대로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장점을 칭찬하거나 배울 점을 말한다.

9) 각 조에서 1명 발표하기

10)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개요 작성을 다시 강의한다.

세 번째 강의: 문단 쓰기 실제

1. 조별로 앉는다. 한 조는 최대 5명, 최소 3명이다.

2. 문단 샘플을 통한 강의

성경이나 무협지냐

논술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적이 있다. 한 학생이 눈에 띄었다. 영수는 평균 이하이고, 국어는 약간 웃도는데, 유독 논술은 강했다. 물어보았다. “책 좋아하니?” “아닌데요.” “그럼, 책 많이 읽니?” “거의 안 읽는데요.” 글쓰기는 타고난 재능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독서를 해야 잘한다.

이상하다. 해서, 다시 묻는다. “뭐라도 읽을 텐데?” 뜬금없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한다. “무협지요. 제가 무협지란 무협지는 안 읽어 본 것 없이 죄다 보았어요.” 새삼 확인한다. 어떤 장르의 책이든, 심지어 무협지라도 독파하면 이치에 맞게 사고하고, 글을 쓰는 데 큰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하물며 성경이라.

우리는 무협지와 감히 견줄 수 없는 성경을 주야로 읽도록 부름 받았다. 그런데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작가가 드물고,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는 맹목적인 광신자로 세상에 비취지는 것은 왜일까? 둘 중 하나일거다.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이 무협지만 못하거나. 답은 뻔하다. 힘써 성경을 읽을 일이다.

하나님도 아들을 잃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애처롭게 보였다. 그도 아들 잃은 아버지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데도 속절없이 지켜만 보았다. 가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천천히 죽어가는 아들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다. 그 날, 그곳은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내렸지 싶다. 얼굴을 가리고 껴끼어 우시는 아들 잃은 아버지 하나님. 딱도 하시지. 불쌍한 우리 하나님.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신이 난다. 아들의 죽음을 기억해주는 이들 때문이다. 당신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는 고마운 사람들, 죽음을 애도하며, 나 때문에 죽었다며 애통하며, 자신도 십자가 지겠다고 공언하는 제자들, 하나를 빼앗기고 셀 수 없는 자녀를 얻었으니 위로를 받았다. 참 좋기도 하시겠다. 더 없이 행복한 우리 하나님.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다시 운다. 왜 죽은 지도 모르는 아들, 딸이 차마 그리워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라고, 그냥 사고라며 비하하고, 죽음을 돈으로 환산하고, 죽인 자가 불쌍하다고 악을 쓰는구나. 참척의 슬픔 당한 하나님 심정을 헤아린다면서 자식 죽어 우는 부모 마음을 짓이기는구나. 오늘도 바다는 적막하고 날은 흐리고 비가 내린다. 하나님도 아들을 잃었다.

지옥 가는 법

C. S. 루이스의 판타지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은 지옥에 있던 영들이 천국의 언저리를 여행하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이지만,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한 여자 유령은 밝은 빛과 생생한 대지가 소름끼친다며 익숙한 땅으로 제일 먼저 가버린다. 천국의 삶의 스타일과 존재 양식과는 달리 살았기에 들어가 살 수도, 살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사장이었던 유령은 친구를 살해한 종업원 잭이 천국에 있자 아연실색한다. 평생 반듯했던 이 도덕주의자는 저 나쁜 인간보다 못한 대우에 역정을 낸다. 정당한 권리를 외친다. 잭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한 하나님께서 사장이 요구한 권리 이상의 자비를 베푼다며 천국행을 권유한다. 허나, 저런 놈도 천국에 있다면 그런 천국 싫다고 유령은 끝내 발길을 지옥으로 되돌린다.

내 삶을 한 순간에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내 권리만 주장할 것, 나만 정의롭다고 확신할 것, 나 보기에 나쁜 인간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 것. 그러면 또 다른 내가 보기에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나는 천국과 영영 이혼이다. 용서받지도, 용서하지도 않는 그것이 지옥이다. 그 마음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랴. 천국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의 것이나니.

신이 없다면?

“신이 없다면, 문제도 없다!”(No God? No Problem!) 무신론자들의 반종교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의 이면에, 그러니까 전쟁과 폭력에서부터 일상의 소소한 다툼과 분열에는 종교와 신이 있다는 고발이다. 신이 없다면 그 문제들도 싹 사라질 텐데, 종교가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종교는 박멸해야 할 무엇이다.

이 슬로건을 뒤집어보면 어떨까? “문제가 없다면, 신도 없다!”(No Problem? No God!)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초래하는,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발생하는 온갖 고통이 없다면, 더는 신이 필요 없을 테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이 구태여 나서지 않아도 신은 자연스럽게 인간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애당초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 없는데 구원자가 필요할 리 만무하다. 애먼 종교를 잡지 말고, 종교가 생겨나는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종교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허나, 문제가 종교를 요청한다는 것도 부인 못할 진실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테고, 그것들은 하나같이 불가항력적이다. 그것은 신이 있다는, 적어도 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신이 있지 않으면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서러운 이들은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므로 신은 있다!(Yes Problem? Yes God!)

가장 억울한 사람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보면 여럿 있다. 예수 믿으라는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몸소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 그분이 살아냈던 길과 진리, 생명, 자유와 정의, 은혜와 평화를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건어차 버렸으니, 그 좋은 예수 믿지 않고 살았으니, 허송세월 따로 없다. 크게 통탄하고 애통할 일이다.

다음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나 하나님이 모르는 이들이다. 그 좋다는 돈을 아낌없이 헌금하고, 바쁜 중에 예배하고, 열일 제쳐놓고 봉사하고, 맛난 것 참으며 금식하고, 온 맘으로 노래하고, 밤새도록 목청껏 기도했는데, 모른다 하시면 억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존재 증명이었을 뿐, 하나님을 증언한 것은 아닌 때문이다.

마지막은 목사 노릇했는데 하나님이 내친 이들이다. 가족 반대 무릅쓰고 목사 되고, 가족 고생시키며 목사하고, 교인들을 일일이 돌보느라 온갖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도 설교면 설교, 사역이면 사역, 어느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상은커녕 천국 문턱도 넘지 못했다. 가슴 찢 일이다. 목회가 밥벌이 수단이었었던 것이다. 셋 중 누가 제일 억울할까? 나는 셋 중 하나가 아닐까?

3. 자신의 지난 설교 원고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공통 본문에 따라 새롭게 써 본다.

4. 방식

- 1) 여는 말을 1문단 쓰기
- 2) 본문 요약 2문단 쓰기
- 3) 본문 설명 2문단 쓰기
- 4) 실제 적용 1문단 쓰기

5. 실습

- 1) 여는 말 1문단 쓰기

- 2) 본문 요약 2문단 쓰기

- 3) 본문 설명 2문단 쓰기

4) 실제 적용 1문단 쓰기

6. 위의 것을 시간 내에 쓰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 단순한 방식으로 쓸 수 있다.

본문 요약 한 문단 + 의미와 적용 한 문단

7. 각 조에서 자신이 쓴 문단쓰기를 발표한다.

1) 한 사람당 최대 2분 안에 발표를 해야 한다. 실제 설교처럼 하면 안 된다. 골격만 제시하면 된다.

2) 첫 만남이므로 절대로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장점을 칭찬하거나 배울 점을 말한다.

8. 각 조에서 1명 발표하기

9. 발표한 것을 중심으로 문단 쓰기를 다시 강의한다.

설교 원고 샘플

말 씬 : 시편 23편 6절

제 목 : 여호와와 집에서

나는 집을 잃었습니다.

80년대 말 어느 경제학 교수의 강연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집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을 대학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에는 집을 사서 안정된 삶을 향유하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삶의 기초인 대학을 통해 신분 상승의 꿈을 꾁니다. 요즘은 노후 보장이 하나 더 추가 될 듯합니다. 신문을 보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재테크와 부동산, 그리고 특목고나 대학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죽도록 일을 합니다. 부단히 추구합니다. 오매불망 이것 하나로 행복해 하고, 슬퍼합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천하를 손에 넣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얼마의 돈과 몇 채의 집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동네에서 사는지, 무슨 대학을 다니는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대학가기 위해 하는 공부는 공부의 참된 즐거움을 맛보고, 집이란 단란한 가족이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저 남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려는 무한 경쟁에 함몰되어 영혼과 양심마저 팔리는 데도 전혀 감이 없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대학을 다니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해 진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제게 집이라는 단어는 어릴 적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은 집이 연상됩니다. 객지에 오셔서 남들 보다 몇 배로 열심히 일을 하셔서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손을 이끄시고 빈 공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곳이 집을 지을 곳이라고. 당시 동네에서 몇 손가락에 들 만한 그런 좋은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집을 짓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시고 많은 빚더미만 남겨두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이후, 1년에도 수차례 이사해야 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설움 중에 가장 큰 설움을 집 없는 설움이 최고라는 말을 십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셋방살이를 전전해 보니 참으로 힘들더이다. 우리 주님의 심정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 눅 9:58) 이렇듯 우리는 집을 잃어버리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집을 찾습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은 ‘여호와와 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곳입니다. 다윗의 꿈은 그런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늘 여호와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우심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뵈는 것입니다.”(시 27:4, 쉬운) “주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 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시 84:10, 표준)

6절은 이런 다윗의 소망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의 열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축으로 이어집니다. 하여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삼하 7:5, 개정) 그러면서 하나님은 되레 하나님 당신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7:11, 27, 개정)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 견고히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6절의 배경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자신을 따라 다닌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 다니다는 표현은 조금 약합니다. 집요하게 추적했다고 해야 옳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뒤 따라가다, 뒤쫓아 가다, 박해하다, 괴롭히다”는 뜻입니다.(김정우, 627) 하지만 모팻 고트리의 해석이 적절해 보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추적하고, 붙어 다니며 괴롭게 하고, 내 걸음 하나하나를 미행하리니”로 말입니다.(스토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19)

그러나 하나님의 추적과 미행의 특징은 선과 인자함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선은 창세기 1장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구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기 좋게 만드셨고, 그의 굴곡진 삶을 선하게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받은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와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거인 골리앗과 사울의 핍박과 압살롬의 반역과 시므이의 저주와 미갈의 조롱과 목숨같이 귀한 친구 아히도벨의 배반에도,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랐고, 그를 완전한 타락에 빠지지 않게 하였습니다.(비키, 501) 그런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큼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아닌 내가 살 집입니다. 그 꿈을 위해 경쟁하며 오늘도 열심히 분투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의도했던 선이 빛나가서 도리어 악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인자함보다는 차가운 비판과 조소가 가득합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판단하고 정죄하며 서로 후벼 파기에 급급합니다.

다윗도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 집입니다. 그것이 그의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소망으로 그의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그런데도 선한 하나님은 반대로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대하 17:14)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일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워주는 집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쫓아다니는 삶과 쫓겨 다니는 삶입니다. 제 스스로 집을 지으려 애쓰는 자와 하나님이 집을 세워 주시는 삶입니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그런 집을 위해 쫓아다니지 말고, 견고하고 영원할 하늘의 집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래 위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삐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삐 따라다니면서 선함과 인자하심을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은 우리를 집을 잃은 자로 묘사합니다. 주님은 잃은 자를 찾는 분입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눅 19:10)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이고, 절정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난 허망하고 허랑방탕한 삶의 종지부를 찍는 말을 합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15:17, 공동) 아버지 집과 그 집을 떠난 자의 궁핍함이 절묘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을 잃은 자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말로 영원히 살겠다는 단어는 마소라 사본에는 “나는 돌아가리라”(return)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우 교수는 “문맥으로 본다면, ‘돌아오다’가 더 적절해 보인다”고 합니다.(627) 그가 그렇게 해석하는 까닭은 이 시편이 순례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살겠다는 절절한 바람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교도의 땅에서 제국의 노예로 살면서 살아 생전에 반드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고픈 애달픈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땅,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세웠던 그 땅으로 돌아올 때의 벅찬 그들의 심정을 인상적으로 표현한 시가 126편입니다. “주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 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 때에 다른 민족도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뻐던가!”(1-3) 입을 다물지도 못할 만큼 신이 나서 어깨가 들썩이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그들은 오죽 더 했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일관되게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0:19) 이집트 땅에서 잠시 붙어사는 떠돌이에 불과했듯이, 그리고 바벨론 땅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신약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나그네 됨을 환기시켜 주는 것은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는 세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지칭합니다.(벧전 1:1, 1:17 2:11)

이는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주님을 만나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시인의 갈망입니다. 그곳에 안식과 휴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다니엘은 매일 세 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실각되고 숙청당하는 환난을 당할 지라도 그의 시선은 온통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 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우리는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

또한 이것은 일평생의 소원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 평생 살면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결국 돌아가야 할 곳, 영원한 복락 누리게 될 곳을 소망합니다. 더는 눈물이 없고, 이별도 없고, 그래서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계 21:4)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의 극치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푸른 풀밭에 눕고, 실 만한 물가에서 마른 목을 축였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낙담한 영혼이 힘을 얻었습니다. 때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삶을 단념하고픈 순간이 있었지만 그 한 가운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셨습니다. 살면서 부대끼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원수요 앙숙들 앞에서 승리케 하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런 다함이 없고 더함이 없는 지복의 삶이 완성이 되는 하늘 나라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집에서 사는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 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시 84:10)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참새도 주의 제단 곁에서는 제 집을 찾고, 제비도 새끼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시 84:1-4)

저희 집 첫째가 유치원에 다닐 적 일입니다. 해질 무렵 산책 겸 아이 손을 잡고 집 앞의 초등학교에 들렀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를 다니던 초등학교 여자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워낙 씩씩한지라 아들과 잘 놀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입구, 저 멀리서 엄마가 큰 목소리로 부릅니다. “애야, 밥 먹자!” 그러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는 인사도 하지 않고 달려가며 손을 툐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곳, 사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 하늘 나라 집을 소망합니다.!

나는 집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하늘의 집을 바라보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찌면 현실 도피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 했습니다. 왜곡된 삶의 현실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현실의 억압과 질곡을 종교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잊어버리고, 또 도망가기 위해서 하늘의 집을 말하는 순간, 기독교는 현실을 변혁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체제가 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흰 옷 입은 두 사람, 그러니까 천사들이 주의를 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행 1:11) 그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언제 다시 오실까를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내가 사는 곳을 여호와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를 나그네로 규정한 앞서 인용했던 신명기 구절은 나그네이니 세상 일에 무관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그네를 돌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며(2:11) 나그네 삶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1:17)

‘나는 돌아가리라’로 번역된 이 구절은 ‘나는 거주하리라’는 번역을 지지하는 사본이 더 많고 공식적으로 인정 받습니다. 보프 신부의 말입니다. “이는 선한 목자와 자애로운 주인이 하는 일의 절정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로 이끌고, 주님의 집, 곧 성전에 거하게 한다. 더 이상 잠깐 스쳐지나가는 손님은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Boff, *The Lord is my Shepherd*, 136)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전까지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편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과 ‘집’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이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몸도 그렇거니와 집은 어느 한 부분이 없으면 고장 나고 쓸모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개 신자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목자입니다. 그분의 인도와 지도하심을 따르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 본연의 사명이요 기능입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 더러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호칭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까먹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안타까워서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고전 3:16) 하나님의 성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 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집을 구하고 더 많이 얻기 위해 실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허물거나 시효가 다하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이 생활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의 어떤 집도 흉내 낼 수 없는 고귀한 집입니다. 시인은, 그리고 우리는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집을 주소서, 이 땅의 집과 함께 하늘의 집을 허락하소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 살게 하소서!”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